

## 청양 관산리에서 제2의 고향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유억근 추진위원장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를 빠져나와 29번 국도로 내려오는 청양의 첫 관문에 위치한 우리 마을은, 41가구에 116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임진왜란과 6.25 동란 등 큰 전란에도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숨은 골짜기라고 하여 ‘은골’이라고 불리는 산골마을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전개 되었을 때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우수한 마을로 평가 되었으며 현재도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되는 마을이다.



▲ 마을입구 느티나무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칠갑산 구기자 한과공장”이다. 여성들이 주축이 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구기자, 깨 등을 이용하여 고품질 한과를 생산하고 있다. 마을입구에서 두 번째로 눈에 들어 오는 것은 700여년 된 느티나무이다. 이 나무는 마

을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멋진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이다.

마을은 크게 3개의 계곡(큰골, 구적골, 가낙골)을 가지고 있는데 큰골과 구적골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은 하트 모양의 큰 저수지에 흘러 내려온다. 이 저수지는 4개 마을의 농업용수로 쓰일 뿐만 아니라, 수달과 다양한 물고기(잉어, 붕어, 가물치, 메기, 뱀장어, 산천어, 빙어, 향어, 새우, 참계)가 서식하고 있는 1급수의 저수지이다. 마을 사람들은 하트 모양을 닮았다고 이 저수지를 “사랑저수지”라고 부른다. 사랑 저수지 아래의 놀이터와 수영장은 여름철에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의 쉼터역할을 하기도 한다.

2002년 4월 10일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 백년 이상이 된 울창한 수목을 4시간 만에 전부 잃어 버렸다. 그 와중에도 마을 뒷산에 있는 산제당은 불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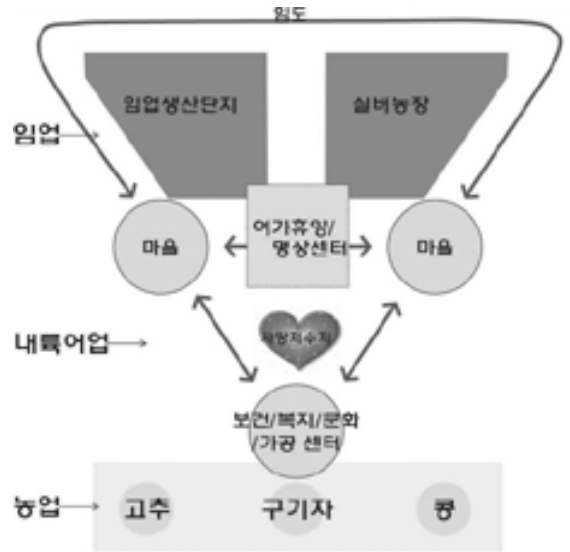
▲ 마을계획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 도농녹색교류

않고 남아 있어 마을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산제당에서의 제는 음력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정성을 드려 올린다. 이 때 제주는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를 하고 외부에는 금줄을 치고 제관, 축관, 짐꾼만이 산제당에 들어간다. 산제당은 우리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산불에 의한 좌절 속에서 은근히 간직해온 희망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2005년 3월에 농림부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것이다. 현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설연구소와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마을의 새로운 비전에 눈을 뜨게 되었고 우선 장기적인 마을발전 전략을 세웠다. 그 중에서 시급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해나가자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마을의 장기발전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양의 관문으로서 대표마을을 만들자. 친환경 농업을 100%로 달성하고, 청양의 대표 농업생산물인 구기자·고추·콩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유통·관광 부문에서는 청양 생태농촌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여 직거래구조를 완성하고, 내부소비구조를 만들자.
2. 산촌마을사업을 유치하여 산불지역마을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사랑저수지 주변 여가휴양센터를 조성하자. 또한 마을주민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마을로 가기 위한 교육 및 보건복지 시스템, 노인일거리를 만들자.
3.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로 만들자. 최고 수준의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시니어콤플렉스 등 도시



〈마을 장기발전 기본구상〉

자본, 도시민을 유입하여 대가 끊기지 않는 마을로 만들자.

현재 마을주민 3명이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최고지도자과정 16주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은 기본이고 타 마을에서 행해지는 농촌체험단에 합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

우리 마을은 작지만 커다란 희망의 씨앗을 우리 주민들 각자의 마음속에 심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마을 주민들, 그리고 도시민들과도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 청양 관산리에서 제2의 고향마을을 만들어 보자. 희망을 함께 키워보고 싶다.